

미륵부처님의 하강(下降)을 의미하는 침성대와 수미산정(須彌山井) 그리고 증일아함경과 격암유록에서 알려주는 인류의 구원자에 대해서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가 80년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49년간 말씀하신 팔만 사천의 법문을 경전으로 편찬한 것이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이다. 석가모니는 장차 미래세에 중생들을 고해(苦海)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교경전(佛敎經典)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이러한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傳來)되어 고대로부터 지켜오던 우리 민족의 제천사상인 칠성신앙(七星信仰)과 만나 우리 민족의 토착불교로 자리 잡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중의 하나가 침성대이다.



침성대는 길흥화복을 주관하는 칠성님께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던 제단(祭壇)

불교의 최고의 이상향인 수미산(須彌山)의 모습과 흡사한 침성대는 길흥화복을 주관하는 칠성님께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던 제단(祭壇)이며 장차 지상천국(地上仙國)을 이루어 인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북두칠성이신 미륵부처님이 하강하시는 신전(神殿)의 개념이다.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제(第) 49권(卷) 비상품(非常品) 49

將來之世 有佛名彌勒 出現於世 將來지세 유불명미륵 출현어세 爾時國界名 鷄頭王所治處 爾時國界명 계두왕소치처

장래에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는데 그때의 나라의 이름이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해설]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삼국사기에 경주 감씨의 시조 감알지에 대한 신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 탈해왕 9년 3월에 왕이 밤중에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 숲속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날이 밝자 호공(狐公)을 보내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호공이 시림에 다다라 보니, 금빛의 작은 껍질이 나뭇가지에 달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서 울고 있었다. 이 사실을 듣고 왕은 껍질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 보니 조그마한 새내아가 그 속에 들어 있었는데, 용모가 기이하게 뛰어났다. 왕은 기뻐하며 하늘이 그에게 아들을 내려보낸 것이라 하여 거두어 길렀으니, 그 아이는 자라감에 따라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나서 그 이름을 알지라 하였다.

또 금빛 껍질에서 나옴을 연유로 하여 성을 김씨라 부르고, 처음 발견되었던 장소인 시림을 고쳐 계림(鷄林)이라 이름하고 계림을 국호를 삼았다. 그러므로 예전 중국에서는 신라를 일러서 계림국(雞林國) 또는 계두국(雞頭國)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계두국의 왕을 계두왕(雞頭王)이라고 한 것이다. 계림국이 후에 신라가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러므로 미륵부처님은 한국에서 출현하신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과 똑같은 죄인(罪人)의 몸을 입고 오신 미륵부

처님은 피나는 용맹정진 끝에 마침내 죄의 업장(業障)을 소멸하고 도를 얻게 되는데 그에 대하여 불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제(第) 44권(卷) 십불선품(十不善品) 제(第) 48-3

爾時彌勒在家 未經幾時 便當出家學道 爾時彌勒가 가정기시 편당출가학도 爾時去 頭城不遠 爾時去 계두성불원 有道樹名曰龍華 高一由旬 廣五百步 有道樹名曰龍華 高一由旬 廣五百步 有도수명알화화 고일유순 광오백보 時彌勒菩薩 坐彼樹下 成無上道果 時彌勒菩薩 坐彼樹下 成無上道果 시미륵보살 좌피수하 성무상도과

그때 미륵보살은 집에 있는데 때가 되어 집을 나와 도를 배우는데 그때는 계두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용화라는 도나무(道樹)가 있는데 높이가 일유순이요 넓이가 오백걸음이니 미륵보살이 저 나무 아래에서 위없는 도의 열매를 이루시니...

[해설] 이 말씀은 미륵부처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보살도(菩薩道)를 행하였으나 때가 되어 완성의 도를 닦기 위해 집을 나와서 도를 닦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도를 닦는 장소를 알려 주고 있는 대목이다.

석존은 경전에서 암시적인 부분의 말씀을 무척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야 석존의 깊고 깊은 비밀한 말씀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계두성(雞頭城)이라는 장소(地名)가 나오는데 계두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계두성이라고 하면 바로 계두국의 수도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의 수도인 서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륵보살이 드디어 집을 나와 도를 닦는다고 하였으나 지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말씀은 비

밀한 말씀(秘語)이기에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계두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 닦는 나무가 있다고 함은 바로 미륵보살이 불도를 닦는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멀지 않은 인부지간(仁富之間) 즉 인천(仁川)과 부평(富平), 부천(富川)을 말하는 것이다. 미륵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곳인 밀실(密室)이라고 하는 곳이 경기도 부천시 계수동 산 106-1에 위치하고 있다.

미륵부처님은 금운(金運)으로 오신다

다음은 우리 민족의 대에언서인 격암유록(格菴遺錄)이 전하는 상제 하나님의 아들인 북두칠성이신 미륵부처님이 이십세기 후반에 인간 몸을 입고 동방에 출현하여 피나는 정진 끝에 도를 이루어 인생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이다.

生初之樂(생초지락)

上帝之子斗牛星 二十世後今時當 上帝之子斗牛星 二十世後今時當 상제자자두우성 이십세후금시당 東方出現結冤解 東方出現結冤解 동방출현결원해

두우성 즉 북두칠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20세기 후반을 당한 지금 이때에 동방에 출현하여 이 세상에 뻗었던 원한을 풀어준다.

승은론(勝運論)

龍山三月震天 (용산삼월진천강)에 趨道士(초도사)의 獨躡士(독각사로 須從白兔西白金運(수종백토서백금운) 成于東方靑林(성우동방청림)일세

용산이 곧 삼월(辰)이요 진(震=우레=용)이요 천강 즉 북두칠성이요, 유불선의 도를 초월한 초도사요, 스승 없이 혼자 도를 깨달은 독각사로서 서기동래(西氣東來) 하는 이치에 따라 금운으로 이 세상에 오신 무극대도의 완성자 청림도사이니라.

聖運論(성운론)

때디었네 仙運(선운)와서 天上諸仙出世(천상제신출세)하니 三之諸葛八韓信(삼지제갈말한신)이 三八靑林運氣(삼팔청림운기)바더 十勝大王(십승대왕) 우리聖主(성주) 兩白聖人(양백성인)나오시고 彌勒世尊三神大王(미륵세존삼신대왕) 三豐道師出現(삼풍도사출현)하고

3면에 계속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32>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사람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면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참으로 엄청나게 귀한 말씀으로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단 한 시간, 1분도

안 들으면 안 되는 고로 예배 시간 30분 전에 미리 와서 저절로 앉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귀한 줄 모르니까 이 말씀대로 행동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요, 마음이 있어도 분별을 못하는 자다.*

6월은 보광의 달

보광절에 읽어보아야 할 말씀

승리제단과 조희성 구세주를 연구하는 학자 한 분이 제단에 와서 21일간 알아본 후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신종교를 알아봤지만 조희성님처럼 자신을 구세주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 늘도 조희성님은 설교 말씀 중 수십 번 이상 자신이 구세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렇다! 조희성님은 구세주가 틀림이 없다. 구세주란 세상을 구원하는 주인 공이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한다. 조희성님은 당신이 평생 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

“영모님이 1980.10.15 승리자가 되는 날 찾아오셔서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이 세상에 건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고생한 것도 지켜주네 나머지 그런 고생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은 이 세상을 포기하자고 하신 영모님의 말소리가 귀에 쟁쟁히 들려올 때가 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과거에 죄인인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옵소서. 이것을 길레처럼 취급을 하든지 이것을 희생제물로 취급을 해서라도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고 지옥에 던져도 좋으니 당신이 기뻐하신다면 당

신의 뜻을 따라 이것을 희생제물로 삼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고로 영모님의 그 말씀에 이 사람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제가 받은바 은혜를 하나님에게 보답을 반분지일이라도 해야 되겠나이다. 이 사람에게 허락하실 수 있으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기간을 이 사람에게 맡겨주신다면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은 희생제물이 되겠나이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희생제물이 되겠나이다.

이와 같이 말할 때에 영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애를 써 봤지만 건질 사람이 없다. 그러나 네 뜻이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허락을 받고 삼년 반, 삼년 반, 삼년 반 세 판지기 기간을 이 사람에게 주어 주신 고로 그러고도 그 기간 동안 이 역사를 하기로 허락을 받은 것이다. 그때에 이 사람에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영모님의 모습을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었다(1989-12-12말씀)”

“여러분들! 이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인류를 다 구원한 다음 제일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이다. 구세주란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 희생제물인 것이다.*”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함을 믿는 공덕

법화경에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곧 영생한다는 뜻이지요. 부처님께서 영생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불자들이 수행을 열심히 닦는 공덕보다 더 높은 공덕이라고 법화경은 말합니다.

불자들이 현재 지혜로 나아가는 첩경이 5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인 줄 알고 나름 그 경지를 닦고 있는데 하지만 무량광불이신 주님이 영생하심을 믿는 것보다 5바라밀 닦는 공덕은 한량없이 작은 공덕이라고 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 수명이 이와 같이 길고 영원하다는 말씀을 듣고 능히

일념으로 믿고 이해하면 얻는 공덕이 한량없으리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팔십만여 나유타 겁 동안에 걸쳐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등의 다섯 바라밀을 행하고 지계바라밀은 제외함이다. 이 공덕을 앞에서 말한 공덕과 비유하면 백분의 일, 천분의 일, 백천분의 일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니 숫자로서 비유로도 능히 알 수 없느니라. 만일 이러한 공덕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은 부처님의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느니라.(법화경 17권 분별공덕품)*”

홍인스님

정도령이면 절대로 풀 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격암유록신해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류의 미래 불안!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라!!!!